

분산형 긴급 구조 앱의 국제 협력 배포와 표준화에 관한 종합 제안서

경량형 인공지능이 필요하며, 대학생 개발 인력 3명이면 3개월 안에 개발됩니다.

발신: <https://mcorpai.org/>

수신: 외교 당국,公安·치안 기관, 재외공관 영사과, 국제수사 협력 부서, 재난·위기통신 정책 부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이동통신사 및 위성통신 사업자, 단말 제조사 임원진, 인권·인도주의 단체 담당자, 학계와 의료·법조계 자문단

일자: 2025년 8월 17일

문서 목적: 본 문서는 스캠 컴파운드와 해외 납치형 감금, 재난·분쟁 지역의 통신 단절 환경에서 인명 구조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보장하는 분산형 긴급 구조 앱의 기술·정책·거버넌스 전 범위를 통합 정리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숨겨진 저장소 정책과 전원 버튼 삼중 입력 트리거, 15초 지연 발신과 10분 주기 위치 전송, 가족 3인 지정, 근거리 블루투스 경보와 시민 중계 네트워크, 제조사 기본앱 탑재 전략, 지역별 위성 문자 경로 적응 설계, 데이터 보호와 국제 거버넌스, 수사기관 제출 패키지, 단계별 개발·배포 로드맵을 상용 수준으로 서술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머스크 계열의 최근 협력 동향, 위성 직접연결 서비스의 글로벌 진척, 그리고 통신망 완전 불능 시 '숨겨진 저장소'의 법·기술 운영 방침을 서술했습니다. 본 문서는 외교 공문 문체를 따르며 표나 기호 없이 서술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서문: 본 제안은 기술의 선한 사용을 전제로 하며, 상업적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광고나 유료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최소 수집과 종단간 암호화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 데이터 주권을 준수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통신과 공권력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사람의 생존 신호와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경과 문제 정의: 최근 수년간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서 감금형 범죄(스캠 컴파운드)로 인한 구조 공백이 반복되었습니다. 스캠 컴바운드는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하며, AI 데이터 통계를 통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관광시 납치 확률을 1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력으로 통제당하고, 현지 공권력은 부패하거나 접근이 제한되며, 통신망은 차단이나 장애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의식적 조작을 하지 못해도 자동으로 신호가 준비되고, 네트워크가 복귀하는 즉시 전송되며, 근거리에서는 익명 경보가 안전하게 순환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제안은 그 최소·충분 조건을 기술과 정책과 거버넌스의 결합으로 제시합니다.

비전과 원칙:

앱은 항상 켜져 있다는 전제를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조작 없이 보호를 받습니다. 화면과 소리와 진동은 스텔스 우선 정책을 따르며, 피해자와 주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습니다. 통신 경로는 다층 백업 구조로 설계되어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경로가 작동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목적 제한과 최소 보관 원칙을 준수하고, 열람과 제출은 피해자와 가족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지역별 법과 문화와 언어 차이를 고려해 정책을 차등 적용

합니다.

첫째, 사용자 트리거와 자동화 계층:

전원 버튼을 빠르게 세 번 누르는 트리거가 기본입니다. 이 트리거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즉시 작동하며, 15초 지연 발신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사용자는 5초 내 길게 누르거나 정해진 제스처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패턴은 별도로 기록됩니다. 온디바이스 음성 인식은 "살려줘"와 "헬프미" 등 다국어 안전어를 소음 환경에서 인식하도록 설계되며, 전원 오프로 진입하거나 비정상 종료가 감지될 때 마지막 위치와 시각 요약을 준비합니다.

외부 USB 연결이나 특정 블루투스 기기 페어링 시도가 감지되면 비정상 회수를 가정해 사전 경보를 준비합니다. 일정 시간 조작 부재와 움직임 급감과 이동 패턴 이상 징후가 결합되면 위험 점수를 상승시키고 자동 발신을 수행합니다. 모든 트리거는 단계적이며 상호 교차 확인을 거쳐 오탐을 줄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환경의 숨겨진 저장소 정책:

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거 보존이 우선입니다. 긴급 트리거가 작동하면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녹음과 GPS 좌표와 시각과 가속도 데이터를 수집하여 단말 펌웨어·보안 칩 수준의 숨겨진 저장소에 암호화 저장합니다. 이 저장소는 파일 탐색이나 일반 초기화로 접근할 수 없고, 별도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저장소는 범죄 단체에서 해당 스마트폰을 초기화하여 중고 기기로 판매를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삭제나 해제는 제조사 계정 기반 본인 인증과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사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네트워크가 복구되면 앱은 1차로 저용량 요약 신호를 가족 3인에게 전송하고, 2차로 녹음과 위치 로그 원본을 순차 업로드합니다.

가족은 확인 후 경찰과 인터폴에 제출할 표준 패키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저장소는 화면과 알림에 노출되지 않아 공격자가 즉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책은 제조사와의 펌웨어·보안 칩 통합을 전제로 하며, 단말 수명 주기 동안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안전 대기 기간과 가족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안합니다. 사용자는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앱 내부에서는 삭제 기능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셋째, 통신 경로의 적응형 라우팅: 통신은 다층 백업 구조를 따릅니다.

1. 1순위는 일반 SMS와 데이터 경로로 가족 3인과 신뢰 연락처로 요약 신호를 보냅니다.
2. 2순위는 국제 SMS 게이트웨이와 로밍 경로이며, 실패 시 주기적 재시도를 수행합니다.
3. 3순위는 지역별로 가용한 위성 문자 경로로, 기존 LTE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위성 직접연결 영역에서는 별도 하드웨어 없이 텍스트를 보냅니다.
4. 4순위는 완전 오프라인일 때 증거 번들을 숨겨진 저장소에 보존하고 네트워크 복구 시 자동 업로드합니다. 앱은 단말과 통신사와 지역 정책을 자동 판별해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 구조는 위성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가능한 지역에서는 즉시 위성 경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균형 설계입니다.

넷째, 근거리 경보와 시민 중계 네트워크:

근거리 경보는 익명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버튼 트리거가 작동하면 단말은 비연결 블루투스 신호로 짧은 일회성 토큰을 방송합니다. 동일 앱을 설치했거나 제조사 기본앱에 동의한 인근 단말이 이를 감지해 화면에 일반 알림으로 위장된 경고를 표시하거나 조용히 서버로 중계합니다.

군중 경보는 다수 단말이 같은 토큰을 짧은 시간 창에 감지했을 때만 단계적으로 노출됩니다. 시민에게는 직접 개입을 촉구하지 않고 관찰과 신고와 회피 행동을 권고합니다.

특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통신망이 없을 경우에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으로 납치 범죄 사실 좌표 저장 후, 불특정 스마트폰 사용자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었을 경우 풍당 풍당 바톤터치 방식으로 최대 수km 납치 알림 경보.

블루투스 바톤터치만으로 수 킬로미터를 즉시 전파하는 것은 신뢰성 한계가 있으므로 근거리 비콘은 첫 흡만 담당하고 그 이후는 참여 단말의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완전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지연내성 메시 네트워크로 바톤터치를 보조 채널로 유지하되 속도 한계를 전제로 운용합니다.

다섯째, 블루투스 기술 현실과 설계 원칙:

스마트폰 내장 저전력 블루투스의 실효 거리는 실내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탁 트인 야외에서도 수십 미터에서 많아야 백 미터 전후입니다. 블루

투스 5 장거리 모드는 이론상 범위를 늘리지만 OS와 펌웨어와 주변 간섭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따라서 근거리 알림은 가능하지만 몇 킬로미터 직접 전파는 설계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본 앱은 비연결 광고 방식으로 토큰을 방송하여 배터리와 흔적을 줄이고, 토큰은 분 단위 회전과 서명으로 스푸핑을 어렵게 합니다. 백그라운드 스캔의 전력 부담은 저주기 스캔 윈도우와 이벤트 기반 활성화로 완화합니다. 제조사 기본앱으로의 탑재는 백그라운드 권한과 저전력 최적화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실전 신뢰성을 높입니다.

블루투스는 짧은 시간 안에 납치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어렵지만, 통신망이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납치를 당하면 GPS 위치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불특정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킬 경우 자동으로 전송. 바톤터치 방식으로 납치 알림 전송 가능합니다.

여섯째, 가족 대시보드와 운영센터 연동: (경량형 AI 필요성)

가족 대시보드는 마지막 신호 시각과 최종 좌표와 최근 이동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며, 단말 배터리 잔량과 전송 경로 성공 여부와 실패 사유를 요약합니다. 사건 타임라인과 위험 등급과 권고 행동이 자동 생성되며, 원클릭 전화와 메시지와 현지 경찰과 영사와 인터폴 접점으로 연결됩니다.

표준 보고서 내보내기 기능으로 수사기관 제출용 패키지를 즉시 생성할 수 있고, 가족이 일정 시간 응답하지 않으면 사전 지정한 제3 신뢰인과 공적 접점으로 자동 승격됩니다. 지역별 운영센터는 가족 대시보드의 승인 하에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데이터는 최소 범위에서만 접근됩니다.

일곱째, 스텔스 UX와 안전 장치:

앱 아이콘과 설정 항목은 위장된 명칭으로 표시되는 은닉 모드를 제공합니다. 구조 신호 전송 시 화면과 플래시와 소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신 취소는 5초 내 길게 누르기나 특정 제스처로 가능하며, 취소 패턴은 별도로 기록됩니다. 다중 트리거 교차 확인과 짧은 버퍼링 창으로 오탐을 줄이고, 시민 경보는 위험 점수 임계치 초과 시 단계적으로 노출됩니다. 공격자가 앱을 제거하려 하면 제거 지연과 가족 통지와 복구 안내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여덟째, 개인정보 보호와 DPIA 관점:

데이터는 설계 단계부터 보호됩니다. 구조 신호와 증거 번들은 종단간 암호화로 전송되고, 서버 저장은 가능한 한 짧게 유지됩니다. 목적과 보관 기간은 투명하게 고지되며, 시민 네트워크에는 전화번호와 이름과 기기 식별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열람 권한은 피해자와 가족으로 한정되고, 수사기관 제출은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 승인 하에 이루어집니다. 지역별 데이터 주권과 반출 제한을 준수하며, 고위험 권역에서는 로컬 저장과 지연 업로드 정책을 우선합니다.

아홉째, 법적 준수와 국제 거버넌스: 앱은 각국 통신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위성 통신이 민감한 국가에서는 지상 경로 중심으로 운용하고, 데이터 최소화와 위장 UX를 적용합니다. 현지 정부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자 협약을 추진하여 민간 앱의 자료가 공식 사건 개시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 포맷과 검증 절차를 사전 합의합니다. 수사기관과의 연계는 사건 접수 창구와 디지털 증거 검증 절차를 포함해 제도화합니다.

열째, 제조사 기본앱 탑재와 삼성 협력의 시사점:

제조사 기본앱 탑재는 커버리지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합니다. 백그라운드 스캔과 저전력 최적화 권한을 제조사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고, 초기 설정에서 타인을 돕기 위한 익명 SOS 감지와 중계에 대한 동의를 간명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기본앱(SOS 앱)은 범죄 단체에서 강제로 삭제할 수 없게 합니다. 즉, 범죄 단체에서 SOS 앱을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가 안 되며, 초기화를 할 수 없습니다. SOS 앱은 일반적인 앱이 아니라 스마트폰 시스템에 자체적으로 통합된 앱입니다.

숨겨진 저장소는 제조사 계정과 포털을 통해 관리되므로 법적 요건을 갖춘 본인 인증과 함께 안전하게 운영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테슬라와의 서비스 통합을 발표했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형 공급 계약을 통해 협력 폭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단말 제조사와 우주통신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검증과 공동 파일럿의 실질적 기회가 됩니다. 본 제안은 기본앱 탑재와 위성 문자 경로 연동의 공동 파일럿을 요청합니다.

열한째, 위성 Direct-to-Cell의 적응적 활용:

위성 직접연결 기반 문자 서비스는 지역별 상용화 단계가 상이합니다. 일부 국가는 기존 LTE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이 가능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음성은 순차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쟁 지역에서는 위성 문자 실험이 진행되어 지상망 불능 시의 대안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앱은 단말과 통신사와 지역 정책을 자동 판별해 위성 문자 경로를 백업으로 선택합니다. 지원 국가에서는 구조 신호의 텍스트와 좌표가 우

선 전송되고, 지원 외 국가에서는 단말 내장 위성 SOS 지원 여부를 판단해 사용자를 안내합니다. 위성 사용이 법적으로 민감한 권역에서는 위장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증거 우선 정책을 적용합니다.

열두째, 개발 로드맵과 상용 배포 단계:

개발과 배포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1. 0단계에서 위험 시나리오 정의와 사용자 연구와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2. 1단계에서 전원 버튼 트리거와 음성 안전어와 기본 BLE 비콘과 가족 3인 알림과 숨겨진 저장소를 포함한 MVP를 출시합니다.
3. 2단계에서 참여형 중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와 역과 공공시설에 상시 전원 리스너 단말을 설치해 감지와 중계를 보강합니다.
4. 3단계에서 제조사와 통신사 파트너십을 체결해 기본앱 탑재와 백그라운드 권한과 국제 SMS 게이트웨이 연계를 확정합니다.
5. 4단계에서 지원 국가부터 위성 문자 경로를 활성화하고 단말 SOS와의 상호연동을 구현합니다.
6. 5단계에서 국제기구와 수사기관과의 사건 포맷 표준을 확정하고 대륙별 허브를 중심으로 상시 운영센터를 설치합니다.

열세째, 품질 보증과 시험 계획:

기능 시험은 트리거 인식과 발신 지연과 취소 제스처와 오탐률을 포함해 자동화합니다. 성능 시험은 혼잡한 도심과 실내 복합 환경에서의 감지율

과 지연 시간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측정합니다. 배터리 시험은 화면 꺼짐 상시 스캔과 이벤트 기반 활성의 전력 소모를 장기간 측정합니다. 보안 시험은 토큰 서명 검증과 키 보호와 서버 최소 권한 정책을 정기 평가합니다. 현장 모의훈련은 NGO와 재외공관과 합동으로 분기별 실시합니다.

열네째, 성능과 배터리 최적화:

저주기 스캔과 이벤트 기반 활성으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위험 패턴 감지 시에만 스캔 주기를 높입니다. 음성 인식은 짧은 키워드 스포팅 모델을 온디바이스로 운용해 네트워크 의존을 없애고, 언어팩은 지역별로 동적으로 로딩합니다. GPS는 고정밀 모드와 저전력 모드를 상황에 따라 전환하고, 좌표는 요약과 원본을 분리해 전송합니다.

열다섯째, 보안 아키텍처 상세:

신호 토큰은 분 단위 회전과 서명으로 위조를 방지합니다. 키 관리는 단말 보안 칩과 OS 보안 영역을 활용하며, 서버 접근은 최소 권한과 짧은 세션과 감사 로그로 통제합니다. 숨겨진 저장소의 암호화 키는 단말 내부에서만 관리되어 외부에서 추출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시민 네트워크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익명 통계만 집계합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은 합리적 범위에서 즉시 반영됩니다.

열여섯째, 데이터 모델과 로그 관리의 서술: 구조 신호는 사건 식별자와 좌표와 시각과 경로 요약과 위험 등급으로 구성된 헤더와, 선택적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집니다. 로그는 발신 시각과 경로 선택과 성공 여부와 재시도 횟수와 배터리 상태를 포함하며, 자동 만료 정책으로 일정 기간 이후 삭제됩니다. 증거 번들은 녹음과 좌표 연속성과 가속도 샘플을 포함하고,

무결성 검증을 위한 해시와 서명을 동봉합니다.

열일곱째, 운영 지표와 투명성:

활성 설치 수와 자동 발신 발생 수와 성공 전달률과 가족 후속 조치 개시 시간과 허위 발신률을 기본 지표로 삼고, 지역별 경로 성공률과 배터리 영향과 백그라운드 오류를 지속 평가합니다. 투명성 대시보드에서 비식별화된 지표를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외부 감사와 모의훈련 결과는 요약 보고서로 공개합니다.

열여덟째, 현

장 배포와 교육: 오프라인 설치 키트와 다국어 매뉴얼과 짧은 교육 영상을 현지 NGO와 배포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안전어 선택과 취소 제스처와 가족 대시보드 사용법과 시민 네트워크 윤리가 포함됩니다. 공항과 터미널과 다중이용시설에는 고정형 리스너 단말과 안내물을 설치합니다.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에는 표준 보고서 접수와 후속 대응 절차를 마련합니다.

열아홉째,

재원과 지속 가능성: 개발과 운영은 공익 재원과 기업 사회공헌과 국제기구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정부는 저용량 문자 전송 비용을 공공 안전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은 무료 제공을 유지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와 위성사는 ESG 관점에서 공동 파일럿과 커버리지 확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무째, 위험 평가와 완화 전략:

위성 통신이 민감한 국가에서는 위장 UX와 데이터 최소화와 오프라인 증

거 정책으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군중 경보의 오남용은 다수 감지와 임계치와 단계적 노출로 억제합니다. 배터리 소모는 저주기 스캔과 이벤트 기반 탐지로 줄이고, 제거 시도에는 은닉 모드와 제거 지연과 가족 통지가 대응합니다. 위기 지역에서는 시민 경보의 기본값을 보수적으로 설정합니다.

스물한째, 파일럿 국가별 운용 정책:

위성 친화 국가에서는 위성 문자 경로를 기본 백업으로 활성화하고, 위성 제한 국가에서는 지상 경로 재시도와 오프라인 증거 정책을 우선합니다. 고위험 권역에서는 시민 경보 노출 임계치를 높이고, 가족과 운영센터 중심의 대응을 우선합니다. 재외공관과 연동하여 사건 접수와 증거 제출의 표준 루틴을 마련합니다.

스물두째, 수사기관 제출과 체인 오브 커스터디:

표준 패키지는 사건 타임라인과 좌표 연속성 요약과 신호 경로 로그와 기기 상태 요약과 녹음 원본을 포함합니다. 무결성 확인을 위한 해시와 서명이 동봉되며, 제출 채널은 암호화된 경로를 사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제출 시 서명 검증과 시각 동기화 검증을 통해 디지털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물셋째, 로컬라이제이션과 접근성:

앱은 다국어 지원을 제공하고 로마자 표기와 현지 문자 체계를 함께 제공합니다. 저시력과 청각 제약 사용자를 위해 화면 대비와 자막과 햅틱 피드백을 강화합니다. 음성 안전어는 지역 언어와 억양을 반영해 학습하고, 오프라인 언어팩을 제공합니다.

스물넷째, 시민 네트워크 윤리와 교육 메시지:

시민 경보는 구조 개입이 아니라 관찰과 신고와 회피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한 직접 대면을 피하도록 안내됩니다. 허위 신고와 장난은 차단되며, 반복 위반은 지역 정책에 따라 제재됩니다.

스물다섯째, 삼성 협력 제안의 구체화:

기본앱 탑재와 숨겨진 저장소의 펌웨어·보안 칩 통합, 백그라운드 스캔 최적화, 초기 설정에서의 익명 SOS 감지·중계 동의, 지역별 위성 문자 경로 자동 선택을 삼성 계정과 포털과 연동하여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단말과 네트워크 간 상호운용성 검증을 공동 수행하고, ESG 보고서에 생명 보호 성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전략 측면에서 안전 기능은 구매 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치안 불안 지역과 청소년·여성·노약자 보호 수요에서 신뢰를 강화합니다.

스물여섯째, 커뮤니케이션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

사건 발생 시 가족 대시보드는 권고 행동과 연락 순서를 제시합니다. 연락은 가족과 제3 신뢰인과 현지 경찰과 영사와 인터폴 순서로 이어지며, 실패 시 자동 승격됩니다. 미디어 대응은 운영센터가 전담하며, 피해자 신상 정보는 보호됩니다. 잘못된 경보는 정정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스물일곱째, SDK와 오픈 인터페이스의 서술:

제3자 앱과 기기가 익명 감지와 중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소프트

웨어 키트와 오픈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참여는 옵트인이며, 데이터는 익명 처리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고정형 리스너도 동일 표준으로 연동됩니다.

스물여덟째, 설치와 제거 정책:

앱 설치에 오프라인 파일과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제거는 사용자가 통제하되 은닉 모드와 제거 지연으로 공격자에 의한 강제 제거를 방지합니다. 제거 시 가족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숨겨진 저장소의 증거는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스물아홉째, 개발자와 감사 기록의 관리:

모든 코드 변경은 검토와 서명 절차를 거치며, 빌드와 배포는 재현 가능하게 기록됩니다. 외부 감사와 버그 바운티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주요 정책 변경은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고지됩니다.

서른째, 결론과 공동 추진 요청:

본 제안은 통신과 공권력의 공백에서도 구조 신호와 증거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다층 설계입니다. 제조사 기본앱 탑재와 지역별 위성 문자 경로의 적응적 활용, 오프라인 숨겨진 저장소 정책이 결합될 때, 사람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귀 기관과 기업의 검토와 공동 파일럿을 요청드립니다. 제조사에는 기본앱 탑재와 보안 칩 통합을, 통신사와 위성사에는 국제 게이트웨이와 위성 경로 상용 연동을, 공공기관에는 데이터 표준과 사건 개시 절차의 제도화를 제안드립니다.

부록 A. 기능 통합 요약의 서술:

무료와 무광고와 간편 가입, 가족 3인 지정, 전원 버튼 삼중 입력과 음성 안전어와 전원 오프 감지와 USB 연결 감지, 15초 지연 발신과 10분 주기 위치 요약, 오프라인 숨겨진 저장소와 네트워크 복귀 시 순차 업로드, 근거리 익명 경보와 참여 증계, 국제 SMS와 로밍 백업과 지역별 위성 문자 경로, 가족 대시보드와 수사기관 제출 패키지, 스텔스 UX와 취소 제스처와 은닉 모드가 포함됩니다.

부록 B. 데이터 최소 수집 원칙의 서술:

계정 식별자는 가명화하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외 필수 정보만 수집합니다. 위치와 녹음은 사건 맥락에서만 수집하고 자동 만료 정책을 적용합니다. 로그와 감사 데이터는 법적 의무 범위 내에서 최소화합니다.

부록 C. 표준 제출 패키지의 서술:

사건 타임라인과 좌표 연속성 요약과 신호 경로 로그와 기기 상태 요약을 포함하고, 해시와 서명으로 무결성을 증명합니다. 제출 포맷은 법원과 경찰 표준을 준수합니다.

부록 D. 지역별 운용 정책 차등의 서술:

위성 친화 국가는 위성 문자 경로를 백업으로 활성화하고, 제한 국가는 지상 경로 재시도와 오프라인 증거 정책을 우선합니다. 고위험 권역에서는 시민 경보 노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합니다.

부록 E. 현장 배포와 교육 키트의 서술:

오프라인 설치 파일과 QR 안내물과 다국어 매뉴얼과 교육 영상을 포함하

고, 교육은 30분 내 완료 가능한 모듈로 구성합니다. 재외공관과 협력해 공항과 터미널 배포를 우선합니다.

부록 F. 오프라인 증거 번들 기술 사양의 서술:

증거 번들은 단말 보안 영역에 암호화 저장되고, 키는 보안 칩이나 OS 보안 영역에 보관됩니다. 제조사 계정 기반 본인 인증으로만 해제가 가능하며, 업로드는 요약부터 전송하고 원본은 가족 승인 후 순차 업로드됩니다.

부록 G. 외교·치안 당국용 설명 문안 샘플의 서술:

앱의 목적과 데이터 처리 원칙과 사건 접수 절차와 국제 공조 창구를 한 장 요약으로 설명하는 표준 문안을 제공합니다. 영사 직원용 전화 응대 스크립트와 수사기관용 기술 확인 체크리스트를 포함합니다.

부록 H. 위험 지역 시범 배포 시나리오의 서술:

미얀마와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같은 고위험 권역에서의 배포는 현지 NGO 파트너와 재외공관을 통하여 비가시적으로 진행하며, 시민 네트워크 경보는 초기에는 비활성화하고 가족·운영센터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지상망 복귀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파악해 업로드 창을 확보합니다.

부록 I. OS·제조사 권한 정책 준수 가이드의 서술:

백그라운드 스캔과 자동 발신과 위치 수집이 각 OS 정책을 준수하도록 사용자 고지와 상시 표시와 명시적 옵트인을 요구하며, 정기 점검으로 정책 변화를 반영합니다.

끝으로, 본 확장 2배본은 직전 버전의 핵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세부 설계를 대폭 보강했으며, 외교·치안 당국과 제조사·통신사·위성사와의 협력

개시를 위한 실무 문안까지 준비된 상태입니다. 본 문서를 기준으로 기술 사양서와 MOU 초안과 운영 매뉴얼을 순차 작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AI감수 교정안

“스캠 컴파운드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 납치 확률 10%”

→“스캠 컴파운드는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보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량 수치는 공식 통계 확보 시 각주로 제시)

- “삭제 불가, 초기화 불가”

→“제조사와의 펌웨어/보안 칩 통합 시, 삭제 지연·재인증·가족 통지 등으로 임의 제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일반 앱 단계에서는 은닉 모드+복원 안내로 대응합니다.”

- “블루투스 바톤터치로 수 km 전파”

→“근거리 1홉(BLE 광고) 감지 →감지 단말의 인터넷/위성 중계로 반경 확장(완전 오프라인은 지연내성 메시 전제).”

- “삼성전자와 머스크 계열 협력 동향”

→“단말 제조사-우주통신 연계 검증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되고 있으며, 상호운용성 파일럿 제안이 적기입니다.”(특정 기업 관계는 최신 기사/보도자료로 각주)

보완하면 좋은 7가지

1. 정량 주장 완화(검증 가능성)

- "납치 확률 10%" → 독립 출처가 없다면 "높은 빈도 보고" 등 정성 표현으로 전환. (수치가 필요하면 각주로 출처/메타 설명 필수)

2. '삭제 불가/초기화 불가' 표현 조정(현실 적합성)

- 단말 OS 정책상 제3자 앱이 절대 삭제 불가로 서술되면 반발을 부릅니다.
- 제안 문구: "제조사 펌웨어/보안 칩과 통합 시, 일반 사용자가 임의 삭제·초기화로도 숨겨진 증거는 보호(지연·재인증·가족 통지 포함)처럼 "통합 시" 조건부로 바꾸세요.

3. 블루투스 전파 범위의 현실화(기술 타당성)

- "수 km 즉시 전파"는 오해 소지. 본문 전반은 이미 지연내성 메시+인터넷 증계로 설계하셨으니, 문장을 "근거리 1홉(광고) → 감지 단말의 인터넷 증계"로 일관 표현하세요.

4. iOS/Android 백그라운드 제약 명시(심사 리스크 선제 완화)

- "전원 버튼 3회, 백그라운드 음성 키워드, 상시 BLE 스캔"은 iOS 정책에서 특히 민감.
- 문구 예: "OS 정책 범위 내 동작(제조사·운영자와의 권한 협의를 전제), 일반 앱 단계에서는 대체 트리거(위젯/단축어/위치) 병행"을 넣으세요.

5. 법·정책 리스크 표기(규제 당국 안심)

- 위성 통신 제한국, 암호화·데이터 현지화, 합법적 감청(LEA) 요청 처리를 별도 테이블로 정리.
- "목적 제한·최소 보관·가족 승인 제출"은 이미 좋습니다. 여기에 '비상 공개 기준(임박·심각한 위해) 한 줄 추가 추천.

6. 협력 레일을 명확히(CTA 선명화)

- OEM: "기본앱 탑재+보안 칩 키 보관 파일럿"
- 통신/위성: "국제 SMS 게이트웨이+위성 문자 라우팅 화이트리스트"

- 외교/치안: “표준 사건 포맷(타임라인·서명·해시) 수용 **MOU**”
- **DPA: “DPIA 사전 협의·감사 권한”**
→이렇게 역할별 요청 한 줄을 본문 초반 ‘요청사항(Calls to Action)’ 박스로 빼 주세요.

7. 시한·지표 제시(실행 신뢰도)

- **MVP 3개월 B인은 공격적입니다. “1단계(MVP) 3개월 → 2단계(중계 네트워크) 2개월 → 3단계(OEM·게이트웨이) 3개월”처럼 페이즈 분할과 KPI(성공 전달률, 허위 발신률, 가족 후속 착수시간)를 숫자로 제시하세요.**

문서 구조 미세개선(읽는 사람 입장에서)

8. 표지 바로 뒤 1쪽 요약(Executive Summary)

- 목적(2줄) / 위협모델(3줄) / 해법 삼각축(3줄) / 요청사항 (4줄, 이해관계자별) / 파일럿 타임라인·KPI(3줄)

9. 본문은 서술형 유지 + “정책·법무·기술 사실표(표/부록)”

- 본문은 품격 유지, 수치·정책·제약은 표로 분리해 검토 속도↑

10. **부록: 체인 오브 커스터디 샘플, DPIA 체크리스트, MOU**
템플릿 1p

- “지금 바로 서명 가능한 초안” 느낌을 주면 내부 결재가 빨라집니다.

종합 평

- 전략 자체는 매우 좋고, 외교·치안·제조사·통신사가 한 자리에서 읽고 합의하기 쉬운 프레임입니다.
- 위 **4개 민감 포인트(수치·삭제불가·BLE 범위·OS 제약)**만 표현 정교화하면, 정책·법무 심사를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설계입니다.
- 결론적으로 **좋은 전략**이며, 지금 버전에서 문장 몇 줄과 표 2~3개만 추가하면 제출 준비 완료 수준입니다.